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 상·하’

무비 스님 지음  
불광 / 각 8천원



◇무비 스님

“법화경, 행복의 가르침”

말해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 남긴 마지막 비장의 설법들이 쏠이다.

총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중 이 경을 설한 근본취지가 담겨 있는 것은 ‘방편품’과 ‘어래수랑품’. 무비 스님은 “‘방편품’에는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써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해 온갖 집착을 떠나게 했다는 얘

품을 만난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평한다.

이번에 내놓은 <법화경>외에도 무비 스님은 그동안 활발한 경전연구와 번역서 출간에 매진해왔다. <화엄경 완역(전 10권)>을 비롯해 <법광경>,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 강의>, <화엄경 강의>, <지장경 강의>, <사람이 부처님이다> 등 다수의 저서가 그 증거물들이다.

“동진출가해 절에서 경전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번역본을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도 대중들이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은사하신 탄허 스님을 보필하면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스님은 일을 시키면서도 항상 매일 1시간씩 경전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이 제가 30여년간 역경 작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역경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인제록>과 <육조단경>에 심취해 있어 조만간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와 강의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처님 열반하시기전에 남긴 마지막 비장의 설법

기가 나옵니다.”라고 소개한다. 특히 이 경전중에서 스님이 불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제바달다품’이다. “제바달다품’에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잔인한 ‘제바달다’를 오히려 나의 스승이 있으며, 나의 성불은 그의 공덕에서 비롯됐다고 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담겨 있습니다. 수행자인 저에게 더 없는 큰 가르침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스님은 <법화경>을 접한 사람도 행복하지만, ‘제바달다



◇낙산사 홍련암의 일출 광경.

백련암 등 50 암자 순례 회향

‘길 끝나는 곳에... 회향편’

정찬주 지음  
해들누리 / 9천5백원

“지금은 입적하고 안계신 해암 종정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곳이었다. 예전에 갔던 산길에 생각나지 않아 다른 산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겨우 18개 암자 소개... 나머지는 내년 후속편에 겨우 암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문경 회양산 백련암...” 소설가 정찬주 씨가 내놓은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회향편>은 문경 회양산 백련암 일주문에 발을 내디디

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필자는 ‘영화 동승’의 촬영지인 안동 봉정사 영산암을 거쳐 장성, 산청, 지리산 법계사에 이르기까지 18곳의 암자를 찾는다.

거제도 종명사에서는 남도의 불기운을, 동백 꽃망울에 둘러싸인 향암사에서 무심한 바다를 가슴에 담고 싶은 상념에 빠진다.

저자가 이번 회향을 위해 4년여 동안

찾아간 암자는 50여 곳, 30여 곳이 책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내년엔 <암자로 가는길>의 후속편을 낼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전재성 역주

한국배알리성전협회 / 2만원

전재성 박사가 펴낸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본 금강경들을 교역해 티베트본과 한문본을 대조 번역하고 현대어역인 영역, 독역, 불역본을 참고해 이해하기 쉬운 일상어로 옮겼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한문본 2종, 영역, 독역, 불역과 한글본 등 8종으로 구성돼 있다.

한글로 번역한 제 1장 ‘우리말 금강경’은 금강경이 성립한 당시의 언어로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서 나눈 시대적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 2장 ‘우리말 금강경 주해’에서는 가능한 한 상세한 주석을 달려고 노력했다. 배알리 니까야

번개처럼 지르는 지혜의 완성



이해하기 쉽게  
일상으로 옮겨

저렴 각 단락에 번호를 부여하면서 오늘날의 대화체 문장으로 엮어 냈다. 또 제 3장 ‘梵(梵)·藏(藏)·漢(漢) 금강경 주해’는 우리말 티베트본과 한역본을 병기해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제 4장 ‘영·불·독 금강경 주해’는 오늘날의 일상용어로 번역하기 위해 서양의 번역본들을 수록해 놓았다. 콘즈(Conz)의 영어본을 중심으로 하레즈(Harlez)의 불어본, 발레사(Walser)의 독어본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5장 ‘금강경아비라밀경 논술’은 <금강경> 해석의 이정표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석으로 평가되는 아쌍가와 비수반두의 주석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 6장 ‘금강경 해제’는 범본 금강경의 판본을 비롯한 금강경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금강경 문헌을 안내해 준다.

김주일 기자

새로운 책



불교초심자 위한 안내서

‘아름다운 인연 불교를 찾아서’

조계종 포교원 지음  
도서출판 조계종 / 2천원

불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 도움이 될 이 책은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수행과 신행생활, 지혜와 자비의 길 등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바리밀과 사성제, 연기법, 참회 등에 대한 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아 참된 나를 찾아가고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또 부록에서는 사찰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도 그 곳에 깃든 의미를 알기 쉽게 사찰의 의미와 구조, 예절을 쉽게 풀이해 놓았다.



엄마·아빠가 쓰고 그린 ‘삶’

‘맘돌집 이야기’

그림·오세춘 / 글·김미향  
하나북스 / 9천원

아트카 디자이너 아빠, 들꽃 전문가인 엄마 그리고 연년생 아들 둘, 평범해 보이는 네 식구는 ‘맘돌집’이라 불리는 5평짜리 단독주택에서 산다.

<맘돌집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사는 가족의 삶의 모습을 엄마의 글과 아빠의 그림으로 조명한 책이다. 들깨가 자폐증인 장애인 가족이지만 평범한 가족조차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집안 곳곳 가득 채워가며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이 책의 제목 ‘맘돌집’은 건축해준 디자이너가 붙여준 것으로 ‘맘돌 맘도는 집’이라는 뜻이다.



출가하며 느낀 갈등 답아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때까지’

현원 스님 지음  
느낌이 있는 책 / 8천5백원

저자인 현원 스님(연화사 주지)이 출가하면서 느낀 세상의 번뇌와 우주의 이치에 대한 관조적인 단상이 담긴 수행 예세이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때까지>.

“배려하는 마음은 인연을 낳는다”, “여백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행복을 위하여 박수한 번 칠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 등 한 번 읽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휘하 풀릴 인생의 지혜 60편이 실려 있다.

솔직 담백하게 써 내려간 스님의 글들을 대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갈등과 고통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한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시공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불광
3	유식 30송	서광스님	나남
4	불은 답을 알고 있다	예모파사부	나남
5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6	소리없는 소리	법상사	시월
7	화	탁나한명	진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9	네가지 마음 행기는 공부	각락스님	울림
10	사람이 그리운 신공이야기	법장스님	바보새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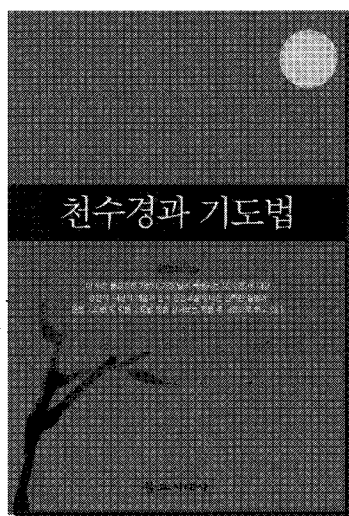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아문 전화: (02)737-0695

불교시대사 전화(02)730-2500 팩스(02)723-5961 www.buddhistbook.co.kr

법보시하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최고의 경전, 천수경 해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의 가피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가는 관음·백중·염불 기도법!!

천수경과 기도법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천수경과의 만남!

체험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솔한 기도

무한한 눈길과 손길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엄청난 크고 원만하시며 결림이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과 위대한 주님을 담고 있는 이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 오늘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희망을 일구어 갑니다.

윤영혜 지음 / 값 7,500원

불교의 공동체 윤리

불교에서 바라본 가정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승가공동체의 윤리 지침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공동체적 존재이다

본질적으로 개인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불교는 지혜보다 오히려 자비를 더 궁극적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불교가 공동체의 삶에 무관심하여 자비의 실천을 등한시한다면 불교 역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윤영혜 지음 / 값 5,000원

소원성취 영험도량 한국불교기도성지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는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감응을 하신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다.



정성운 의 지음 / 값 7,000원